

| 사회적 대화 좌담 |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좌담 개요

-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 **장소**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1
- **참석**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실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 상담소 대표 공인노무사
- **사회** 구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배석**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내홍보 전문위원
안숙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무관
- **정리** <참여와혁신> 최은혜 · 강한님 기자
- **사진**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구은희 경사노위 여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구은희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기존의 노사정위와 차별되는 계층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중앙 노사 단체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 그리고 경영계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대변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계층별위원회를 새로 두고 올해 8월에 이르러서야 여성위원회



를 비롯해서 계층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코로나가 여성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담의 내용도 그동안 논의해왔던 연장선에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희 예, 저는 경사노위 여성위원장이고,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2차 회의 때 제가 발제를 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스트레스 설문조사도 해 보고, 상담과 관련된 분석도 해 보니까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불이익과 고용의 위협을 포함한 많은 영향을 여성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론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경사노위에서 다뤄 보고 공론화 하고, 뭐라도 한번 만들어보면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총 여성본부의 본부장 정연실입니다. 오늘 논의 주제는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과 성별임금격차, 직군,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사회 취약계층에 큰 영향과 충격을 끼쳤는데, 그 중심에 항상 여성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사노위 여성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기점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큼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사노동, 돌봄 관련한 이슈가 추가 법안발의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노총이 국회, 여가부 등과 함께 연대해서 논의한다면 풀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명희 네, 저는 워킹힐 노동법률 상담소 대표 김명희 노무사입니다. 16년간 노무사로 일하면서 주로 여성노동자 지원기관 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직접 들어가서 일할 때도 여성 다수 노조에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5년 3개월간 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직장맘이라는 것은 일하는 여성, 여성노동자들인데 20대부터 40대에 걸쳐 직장맘의 상황이 되잖아요. 이들 직장맘들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보편적으로 겪는 각종 불이익들에 집중해서 밀착 지원을 했거든요. 경사노위 여성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여성노동자들이 밀착 상담을 받도록 하고, 효율적인 여성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분들의 불이익이 감소하고 해소되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자의 각종 문제들을 제대로 의제화 시키는 과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사인 만큼 노동관계법률은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소용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정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평등전략사업센터에 있는 김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성평등전략사업센터는 동향분석, 기획, 현안대응을 하는 부서인데, 올해 초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 대응을 맡아서 연구도 진행하고 조사도 준비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고용위기 관련 정책들이 여성위기 상황

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주로 행정통계나 경제활동 관련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오늘 오신 다른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현장 사례들을 듣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여성노동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구은희 지난 3번의 위기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의 코로나19인데 거의 10년 주기로 위기가 오면서 그 때마다 여성노동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왔고, 그게 누적되더라고요 IMF 때 청년이었던 여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대 사회생활 하다가 경력단절을 겪고, 지금 40~50대가 되면서 또 저임금시장으로 가는 게 패턴이 되면서 더 열악해졌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19는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아직 예측하기도 힘들죠. 이렇게 위기는 반복되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아요. 각자 위치에서 판단하시기에 여성노동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무엇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문제를 던져주셨으면 합니다.



구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명희 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여 있는, 예를 들면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계층에 몰려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실제 숫자도 많지만, 이분들이 이런 위기상황이 될수록 더 열악해지고 있어요.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거의 40% 감소하고 있는데,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받아서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거죠. 여성 전체로 봐도 남성에 비해서 임금차별이 30% 이상이고 열악한데, 그중에서도 저임금, 기간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분들일수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고용보험조차도 적용되

지 않는 중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문제를 풀자고 하면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김원정 이전 경제위기 때와의 고용률 차이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IMF 때 같은 경우는 여성우선구조조정이 굉장히 문제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전년대비 여성고용률 감소폭이 남성보다 크지는 않았더라고요. 고용위기가 전 산업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했고, 여성노동자들이 현재처럼 전 산업에 퍼져있었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남성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던 반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현재의 상황은 여성고용률 감소폭이 남성보다 큰 상황입니다. IMF 이후 여성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층에 내몰려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현재의 위기에서 주목할 것은 어느 부문이 타격을 입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2008년도만 하더라도 금융위기로 시작해서 점차 건설업,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위기가 이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면 현재는 실물경제 위기 중에서도 서비스판매 부문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어요. 3대 대면업종이라고 부르는 교육서비스, 숙박음식, 도소매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직까지 다른 부분으로 이전이 확대되거나 심각한 양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성 비중이 높은 이들 대면업종이 일자리 위기의 가장 주된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위기발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감염병발 경제위기는 상당히 여성화된 위기라고 진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위기의 양상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 이후에 변화하는 경제구조나 기업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먼저 피해를 보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대면업종인 서비스업종,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 일자리가 정부의 비대면,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과 비대면화를 촉진하는 기업의 전략에 의해서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대면 일자리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번 경제위기의 성별화된 효과가 장기화되는 걸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희 여성화된 위기에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최근에 상담 사례 발표 토크콘서트를 했어요.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없어지고, 출산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아예 이 기회에 그만두라고 하는 등 네 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질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동안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운데 지금 육아휴직이 중요하나, 혹은 회사가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했으니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사회의 출산율이 1명도 아닌 0.84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저출생 국가인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여성이라는 계층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위기가 함축적으로 여성에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여성의 경제적 위기라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모부성제에 있어서 부분적 제도개선만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보기가 어려울 만큼 위기가 중첩돼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주목하지 못하면 앞으로 닥칠 위기와 관련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사회의 붕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돌봄노동의 문제였습니다. 2020년 통계를 분석해 보면 고충종합상담이 1~2월에 급증을 해요. 저희도 1~3월까지의 매달 거의 520건 정도의 상담을 했어요. 이걸 다른 시기 평균의 딱 두 배에 달하는 상담 횟수거든요. 그러다가 3월이 지나고 나서 4월부터 통계가 줄어들어 예년수준이거나 줄었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제권리 숫자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건수는 주는데 직접적인 권리구제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보니까 3월까지의 육아나 가사 비경제활동 여성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가 4월서는 비경제활동이 급증해요. 육아와 가사로의 흡수가 너무 높아지고 고착화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잠시 쉬거나 이직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흡수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렵게 버텨왔던 M자 곡선 가장 밑에 있었던 계층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돌봄이 여성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지 못한 과정의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실 그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지표를 보면, 김원정 위원님이나 구은희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IMF,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와 같은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위기 때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남성대비 매번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그동안 사회는 고민과 연구만 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성노동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단순히 과거를 답습하기 보단, 과거를 통해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마다 대처하기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해결방안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에서 밀려나 돌봄으로 떠밀리는 여성노동자

구은희 김원정 위원님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여성화된 위기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성이 집중돼 있는 일자리가 타격이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여성위원회도 맡고 있지만 관광산업위원회도 맡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답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정부 정책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지희 위원장님도 돌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통계를 보더라도 올해 처음에 코로나 막 터지고 몇 달 지나고 여성들이 돌봄 때문에 다 집으로 가신 거죠. 보육시설 폐쇄, 학교 폐쇄 이러면서 자녀 돌봄이 여성노동자들의 몫이 되면서 컴백홈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각 가정마다 ‘82년생 김지영’이 버티고 있는 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 김지영이 회사 관두고 집안에서 돌봄노동 하다가 빙의 현상도 보이고 자아가 분열되는 이상 현상을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직장맘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뭘까요? 스트레스 문제도 있을 거고, 말씀해주신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김명희 부부가 맞벌이라면 여성이 집에 더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겪었던 독박육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되고, 가족끼리 오래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도 심화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다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려고 하면 지금 이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렵죠. 그런 중층적인 구조에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텔레

마케팅 같은 걸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또한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면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실제 경제활동인구 안에 들어갔다가 일자리를 잃어야지만 실업을 통계에 반영이 되는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이 시기에는 더 심화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소득 통계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뭘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거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는 어렵고, 이런 상태로 근근히 버티나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김원정

지난 5~6월에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 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돌봄 시간이 늘었고, 앞으로 돌봄 위기가 계속될 경우 36% 정도는 일자리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경력단절을 완화하려고 20년 정도를 정부 정책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돌봄 위기를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30~40대 여성들은 과거 경제위기 때 20~30대 아이를 키우던 여성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서 말씀드린 여성노동자회 조사에서도 돌봄 위기가 지속돼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응답이 48.6%로 더 많았어요. 그리고 비경황 인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매월 조사를 하잖아요. 3~4월에는 육아로 일을 쉬고 있다는 여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년보다 5만5천 명 정도 늘었는데, 이게 9~10월로 오면서 떨어졌습니다. 9월에는 육아로 인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8천 명 정도만 늘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9~10월에 30대 여성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굉장히 올라갔어요. 9월에는 전년에 비해 1.2%p, 10월에는 1.5%p 올라갔는데 이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진 수치거든요. 보육시설, 요양서비스 문 닫았다고 하는데 사실 6월 이후는

거의 다 정상가동을 했습니다. 요양서비스 수치, 장애인활동지원 수치, 긴급돌봄 수치가 대부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서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성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30대 여성들이 돌봄을 병행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 기회에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지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분석했었던 통계를 보면 15~29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여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가 되게 높아요. 가장 타격을 받은 30~39세 연령대가 예전 같으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취업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돌봄도 해야 하고 취업에 대한 의지는 높는데 실질적으로 '쉬었음'으로 잡히잖아요. 재택도 병행해야 하는데 재택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60%가 넘고, 실질적으로 재택에서도 돌봄을 담당하는 게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꾸 돌봄 전담으로 내몰리는데 의지는 높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임신, 출산, 육아의 불이익이라는 문제나 또는 위기니까 여성은 당연히 돌봄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뉴딜 정책에서 일자리를 만들 때 이 문제가 반영에 돼서 논쟁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여성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위기이기 때문에 세대 초월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여성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타격을 받는지 주목해야 하는 거죠. 중간중간 반짝 증가하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통계의 눈속임이 생길 수 있어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했던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 안에서 숨어 있는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통계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없는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사라지는 일자리는 뭐고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겠죠.

정연실 저도 두 분 말씀에 매우 공감하는데요, 육아나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있는 사회적 구조나 통념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고, 돌봄의 사회화 추진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가 더 확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노동총소속이기는 하지만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협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융의 노사관계는 근로기준법보다 모성보호부분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산업에는 그 부분이 근로기준법보다 하향조정이 돼서 근무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과 산업별로 천차만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봄이라는 과제가 과연 여성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산업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봄이 성별을 떠나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세분화 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토론회와 세미나를 하는 것이 결국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법제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구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저는 규모별의 문제도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99%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99% 안에 들어있는 민간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은 미조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죠. 2018년 통계로 노조 조직률이 11.8%니까 미조직 노동자들이 88%가 넘는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99%라면 사실 대다수 사업장의 문제예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임신, 출산, 육아 문제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보장된 제도조차 사용하지 못해요.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만 제대로 돼도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공무원, 대기업 등 조직노동은 단협으로 법보다 상당히 상위에 있죠. 생리휴가만 해도 조직노동 안에서는 유급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무급이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도 당연히 구분을 해야 하지만 규모별 문제, 그리고 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김지희 그래서 경사노위 여성계층위원회가 생긴 게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되지 않고, 또 법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 현재의 처지와 현황에 대해서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회적 담론과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유리천장이 높은 동네라는 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번에 관광산업위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승무원이나 조종사 분들 같은 경우 연봉이 1억 정도 되죠. 이분들이 무급휴직 하는 자신의 삶을 상상해 본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임금, 안정적인 직업군이었는데 이번의 위기는 이분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임금에 안정적인 직군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주목도 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여성의 노동처럼 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담론화되면서 확인되지 못했던 그림자 노동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돌봄이나 가사노동, 특고, 프리랜서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이런 부분들을 목적의식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 계속 그 의제를 쟁점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처럼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주목하고 연대해서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노동귀족이니 자기네 밥그릇이니 노동자를 분리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실 우리가 여성할당제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서선 여성이 없는데 어떻게 할당을 하나든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왜 여성이 없어졌는지 고민을 하였고, 2011년도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 간부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할당제를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라고 해도 노동조합 간부 중에 여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

서 공정한 룰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지, 여성 간부와 여성본부는 왜 확대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문제나 돌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법의 보호와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부의 뉴딜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요, 뉴딜의 세부과제 및 투자계획 중 '안전망 강화'를 보면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전 지원 및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 힘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에 추가적으로 여성 참여 비율 할당이나 뉴딜 사업별 여성참여 목표설정 등 여성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근로의욕은 높는데 일자리가 없는 여성들

구은희 아까 지금의 30~40대 여성들은 근로의욕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성에게 집중되는 위기인데 정부 일자리정책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경사노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정 지금의 청년들이나 30~40대 여성들은 자기 어머니 세대처럼 가족지향적인 전망을 하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8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여성들은 일가족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안 낳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노동중심적인 생애를 살겠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노동중심생애에 대해서 지금 청년 세대가 남녀 차이가 없다는 변화는 너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희 단순하게 일을 향한 욕구라고 하면 경제적인 요구가 높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내 일을 가지고, 그래서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경제요구가 예전처럼,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건 코로나 시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층이 청년 여성 노동층,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소위 말

하는 가임기 여성이에요. 이 세대의 경제적 요구는, 과거 40~50대가 가지고 있었던 요구와 굉장히 다른 적극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대가 요구가 다르고 삶의 지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책은 40~50대에 맞춰져서 현재 중장년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돌봄이나 가사노동, 또는 저임금 숙박, 서비스업 중심 정책을 통해 중장년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40~50대 여성들은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어 가면서 경력단절에서 다시 시장으로 진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향은 또 달라요. 그냥 애들 학원비 벌고 도와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계형이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 욕구 자체가 지금은 정말 살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잘 판단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 여성들은 시장에 진입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일 거 같아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직장을 다녀야 근로기준법 설명을 듣죠. 교육만 계속 받았지 근로계약서를 써 본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현실감 있는 정책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30~40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제대로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 발표에서 한 분이 마지막에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울었어요. 그분은 아이 둘을 낳고 육아휴직 해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후배 둘과 본인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후배 둘을 살리고 본인이 해고를 받아들였어요. 화장을 하고 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마지막 출근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화장하고 출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으로 여겨지고 아이를 낳고 나면 객관적인 조건이 어려워서 대부분이 좌절을 하죠. 여성들이 본인이 경력을 중단하는 사유의 1위는 결혼이에요. 두 번째가 임신, 출산, 육아이고, 세 번째가 기타 이유로 조사되거든요.

누구나 조금 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특히 여성들은 자꾸 부차적 노동으로 취급되는 거죠. 결혼하면 먼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임금격차 해소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 후의 여성들이 일자리로 다시 진입을 하는 과정도, 욕구는 굉장히 높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고 보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력단

절여성이 취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021년부터 훨씬 더 많은 충격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2021년의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정부가 판단하는가, 또 여성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있어서 2021년이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실 우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 기회 부여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별 기업별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저희 금융권만 해도 지난 2014년 경단녀 채용의 반 의무화로 5년간 매년 약 2천 명씩 취직의 기회를 가졌고 지금도 그녀들의 자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경단녀 채용이 아예 없어진 부분이 매우 애석할 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또는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저희 경사노위 여성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채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채용을 보면 여성 채용 인원을 딱 할당량에만 맞추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이죠. 우스갯소리로 ‘같은 스펙이면 이왕이면 남자를 뽑겠다’는 얘기가 만연되고 있는 사회인데요,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여성할당제의 도입, 그리고 할당 퍼센티지를 높이는 정책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실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돌봄노동은 공적 영역이다

구은희 김원정 박사님도 코로나 위기로 집에 가계신 분들의 재진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일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돌봄노동 사회화 얘기로 넘어가볼까 합니다. 일단 돌봄노동의 사회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

게 해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김명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적 돌봄법 제정, 사회적 돌봄위원회 구성, 돌봄종합기구 설립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중에 가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유급 돌봄노동자의 합리적 인정과 보상체계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는 각종 센터 만들고 종합 돌봄기구를 설립해서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서비스원도 곳곳에 확대되고 있잖아요. 단기와 장기과제를 놓고 체계화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낫다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김원정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돌봄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시기에 어떻게 안전한 공적 돌봄을 중단 없이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주는 사람도 없고 손소독제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훨씬 안전도 높은 방식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전혀 없이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불안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회화된 돌봄이라고 하는 게 과연 공적 돌봄, 안전한 돌봄인가라는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금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늘어난 방역업무를 정해진 인력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 관리해야죠, 마스크 씌워야 되죠, 청소해야 하죠, 소독도 다 해야 되죠.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상황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와 보상을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현재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관련 TF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 필수노동자 논의 안에서 돌봄노동자 안전에 대한 수율을 정확하게 챙겨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희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사회에서 돌봄노동이 평가의 기준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돌봄교사들의 경우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했던 이유가 돌봄노동이라는 것이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서비스를 받는 사적 서비스로 느껴지는 문제 때문이었죠. 돌봄이 사적이 아닌 공적인 돌봄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현재 돌봄이 공적인 영역으로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 수준인 거예요. 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보장이 돼야만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필수노동자에 택배, 요양보호사 밖에 안 들어가고 돌봄노동이 빠졌어요, 그리고 단서조항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한해서로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돌봄은 아예 빠지고 가사노동도 일부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생의 전체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돌봄이 말 그대로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공적인 개념을 만들고 국가가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방과후교실, 돌봄학교 이런 식으로 분산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이분들이 필수노동의 영역으로 진입을 해야 그 영역 자체가 공적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논쟁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희 평소에 필수노동에서 빠져 있던 노동들을 이 위기에 오히려 다 진입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렵겠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도 포함됐잖아요. 예전에 사설 어린이집과는 달리 공적 체계 안에 들어오니까 사설에서는 묻혀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도 민간에 있을 땐 보육교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목소리조차 못내고 그냥 묻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공적 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매뉴얼 안에서 바로 대응해서 조사위원 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미 시작된 조직에서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희 이건 질문인데,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하는 게 원래 추진 계획이었어요? 공청회도 했었고, 야당 반대도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올바른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노동자 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가 12월 8일에 있을 예정인데, 현재 토론회에 야당원의 참석여부가 불확실하고 과거 사례를 보면 수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와 돌봄 문제 해결이 환노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책임감 있게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희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 정당성을 다져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돌봄은 모든 계층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 계층의 생애 주기별로 돌봄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당겨오는 것이 비록 정치적인 복잡함이 있고 저항이 있을지언정 어떻게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끌고 간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있다고 보는 거예요. 돌봄이 중요한 계층이 아이들과 노인층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사회적인 대화와 합의로 쟁점을 옮겨나가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너무 크고 복잡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라도 주고 방역을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이 안에 넣으라는 거죠. 여기가 필수적인 대면노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게 국민 건강관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김명희 아까 여성들의 노동욕구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존중이나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터지고 뭔가 문제제기할 수 있게 열렸어요. 노동존중정부도 천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나 민주화와 관련된 욕구를 높게 만드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노동욕구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통계에선 이게 안 잡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치과잉의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정책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번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물론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김지희 확실히 조금 더 노동에 대해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변화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친화라는 걸 뭘로 평가할 것이냐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성은?

구은희 저희 계층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의제발굴이에요. 당사자들이 자기의 의제를 스스로 발굴해서 사회화한다. 이게 우리 여성위원회, 계

층별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논의를 하다보니까 우리끼리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사용자나 정부를 같이 해서 의제별위원회나 업종별위원회로 관을 키워서 말 그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도록 하는 중간다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일단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두 번째 기능인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얘기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포섭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사노동자 입법 관련해서, 한계는 물론 뚜렷한데 그래도 보호를 위한 첫발은 되겠다는 판단에서 우리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분들이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이 밀집해있는 업종이 되살아나서 다시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안전과 관련된 무엇도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의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되고 담론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김명희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여성노동을 조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도 좋지만 어쨌든 헌법상의 조직은 노동조합이고 워낙 미조직 노동자가 많으니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노동회의소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안 되면 여성노동회의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노동의 조직화 문제를 의제화시키는데 있어서 우선 시작은 여성노동자회와 같이 여성노동에 집중해온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의 전국적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 상담소 대표 공인노무사

인,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 단계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화를 향한 전국 여성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 꼽고 싶네요.

그리고 항상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아까 결혼이 첫 번째 문제라 하셨지만 결혼한 뒤에 고충을 겪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 시기를 꼭 거쳐야 되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시기의 분들에게 밀착 지원, 밀착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성노동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정연실 저출산/고령화도 그렇고 성별임금격차해소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저희가 논의해왔던 수많은 이슈들의 가장 기본 근원은 성차별주의와 연령차별주의라고 봅니다. 올해로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에 고통받던 여공들을 위해 전태일 열사께서 희생하신지 벌써 50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이 살기 위해서는 여성만의 목소리가 아닌 남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을 떠나 사회 각층과 노동단체 간의 소통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나가 여성의 노동이 곧 시대정신이라는 것과 사회적 성평등을 사회규범으로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정 지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게 관광과 운수 쪽이잖아요. 8개 업종이 돼있는데 여기에 3대 대면업종은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서비스, 도소매, 숙박·음식점 중에서 숙박이 들어가는 있는데 호텔하고 콘도 정도 되는 대형 숙박업체만 들어가 있어요. 이들 업종을 고른 근거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행이나 관광, 운수 이런 쪽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지정의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성집중직종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고용유지지원금도 더 주고 여기서 실직한 사람들에게 훈련 기회나 용자도 저리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실적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협소하게 지정을 했나 하는 거죠. 지정과정에서 업종별 성별화된 위기가 고려되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가 세 개의 축인 것 같은데, 이것의 성별효과를 더 찬찬히 보면서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여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8~9월에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성 3대 업종 중심으로 임시직 취업자 감소폭이 엄청 올라갔는데 자영업자만 피해지원을 해주고 거기 일하던 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임시직이어서 고용보험 가입률도 상당히 낮은 분들이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국민 고용보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언제 해요? 자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같이 이미 세팅된 제도에서 사각지대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가 계층의 대변 효과도 있겠지만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성주류화하는 역할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극화 논의하고, 사회안전망 논의하고 다 의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젠더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건가를 모니터링하면서 경사노위 전반이 좀 더 젠더 이슈에 친화적인, 젠더 이슈를 통합한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일환으로 공적돌봄개선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제위원회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안은 일단 정부부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코로나 이후 어떤 돌봄 체계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부처 간,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지희 사회적 돌봄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당사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쟁점화 시켜내려면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사자 목소리도 나오고 전문가 분들이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분과위원회를 만들든 의제위원회를 만들든 이런 부분을 경사노위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목소리를 모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경사노위 여성위원회가 처음 출발을 해서 이제 1기라 저희들도 고민하고 만 들어가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처음 출발할 때 그랬지만 실효적 활동을 했으면 좋

겠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궁극적으로는 거대담론을 건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처음부터 쟁점에 휘말려서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처럼 아무것도 논의되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어도 의제를 성립시켜내고 합의로 가든, 정책제안을 통해서 관철을 해내든, 기구화시켜내든 뭐라도 역할을 해서 실효적인 대안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들,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고민과 의지들이 계속 제기되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실효적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발길을 내딛다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한 것이죠.

코로나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여성노동의 문제를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화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공론화하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여성노동의 문제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켜내고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경사노위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부여된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위원회 회의는 에너지가 넘친다고들 해요. 사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이제 시작하다보니까 뭔가를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들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효적인 문제, 또 필요하다면 굉장히 쟁점이 되는 거대담론을 건드려야 될 때는 또 건드려야 되는 의무와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날이 서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출발은 미조직되고 반영되지 못한 목소리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내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쯤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은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희 위원장님께서 실효적 활동과 대안 마련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이 좌담회도 실효적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특별고용지원금, 최저임금, 긴급생계지원금에서 여성의 사각지대가 해소되

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신다고 하셨으니 결과가 나오면 저희랑 꼭 공유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아까 가칭으로, 아이디어로 주신 게 공적돌봄개선위원회 인데 그 방법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실효적으로 고민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